

조선과 중국의 『보천가』 연구

김상혁¹, 양홍진^{1†}, 이용복², 안영숙¹
¹한국천문연구원, ²서울교육대학교

A Study on the 「Bocheonga」 of Joseon and China

Sang Hyuk Kim¹, Hong-Jin Yang^{1†}, Yong Bok Lee², and Young Sook Ahn¹

¹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Daejeon 305-348, Korea

²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137-742, Korea

E-mail: hjyang@kasi.re.kr

(Received August 6, 2009; Accepted August 18, 2009)

요 약

한국의 전통 천문학은 과거 중국의 영향을 받아 여러 면에서 중국과 비슷하지만 별자리 모양이나 별이름 등에서 중국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규장각에 보관중인 조선 초기의 보천가와 중국 수대(隋代, 581 ~ 618) 왕희명(王希明)이 저술한 보천가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두 보천가에 그려진 천문도 별자리 모양과 연결선 그리고 본문 설명에 대하여 각각 비교하였다. 두 책을 비교·분석한 결과 별자리 설명의 여러 부분에서 전반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두 서적의 구성에서 서문과 삼원 별자리, 은하수 설명은 확연한 차이를 보여 준다. 둘째, 보천가에 그려진 전반적 별자리 그림은 비슷하지만 별자리의 연결선과 별의 개수가 여러 곳에서 다르게 그려져 있다. 셋째, 조선의 보천가는 중국 왕희명 보천가와 달리 별자리 설명에서 별의 색깔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두 나라 보천가의 차이점과 조선 보천가의 고유한 특징을 찾아 논문에 정리하였다. 조선 보천가와 중국 보천가의 여러 차이점은 우리 고유의 천문지식과 체계가 고려시대 이전부터 꾸준히 전해져 왔음을 짐작케 한다.

Abstract

Korean historical constellations and their names are similar to Chinese ones. Although Korean historical astronomy is influenced by China, they have distinct differences in each shape and names of the constellations. We, therefore, compare Bocheonga (步天歌) of the early Joseon dynasty (朝鮮, 1392 ~ 1910) preserved in Gyujuanggark (奎章閣) with that of the Sui dynasty (隋代, 581 ~ 618) of China written by Wang Ximing (王希明) in terms of star charts and descriptions of the contents. We find out that the two books are partly different all over the books. First, there are definite differences in preface, three area of constellations (三垣) in the heaven, and the description of the Milky Way. Second, some of constellations show different in shape, the number of stars. Especially connecting pattern in some constellations shows different in each other. Third, Joseon Bocheonga describes their colors for some stars. These mean that Joseon has a unique tradition of star maps unlike Chinese one. We also summarize the differences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Joseon star charts compared with Chinese ones.

[†]corresponding author

Keywords: Bocheonga, star map, ancient constellation

1. 서 론

고대로부터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하늘의 별과 별자리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별이나 별자리는 역법이나 시각을 알기 위한 목적 외에도 정치적 대상으로까지 다양하게 인식되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별자리 그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고인돌 덮개돌과 고구려 고분벽화에 남아 전해지고 있다. 현존하는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서 별자리가 발견되거나 추정된 고분은 현재 25기가 알려져 있다(김일권 2006, 박창범과 양홍진 2009).

천문도에 대한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통일신라 효소왕 1년(692)에 승려 도증(道證)이 당나라에서 천문도를 처음 가져 온 것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¹. 한편, 그보다 약 20년 앞선 덕복(德福)은 중국에서 천문학을 배우고 돌아와 신력으로 고쳐 썼다는 기록도 있다². 이것은 우리나라가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미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의 별자리 전통은 고구려를 거쳐 조선 초기에 이르러 1395년(태조 4) 둘에 새긴 천상열차분야지도로 이어진다. 이 천문도는 중국의 천문도와 비교되는 여러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천문도의 도설에 의하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은 중국의 천문도가 아닌 평양성에 있었던 천문도의 인본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³. 조선 초기에 발간된 조선 『보천가(步天歌)』의 경우도 중국의 『보천가』와 많은 차이가 있음이 이미 보고되었다(송두중 2006, 이용복 2007)⁴.

이용복(2007)은 중국의 천문도와 우리나라 전통의 천문도와는 별자리 묘사 방법이 서로 달라 그 근원이 서로 다름을 밝히고 있으며, 고구려의 전통 별자리가 천상열차분야지도에 이어져 내려왔고, 이는 중국 고유의 전통적 별자리가 조선의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몇 가지 별자리 묘사 방법을 예로 들어 밝히고 있다. 조선 별자리의 영향을 받은 천문도가 최근 보고되었는데, 1998년 확인된 일본 기토라 고분 안에 그려진 성수도는 일본에서 그려진 천문도가 아닌 고구려 수도인 평양에서 관측된 별자리임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橋本敬造 1998).

중국의 별자리 체계는 사마천의 『사기(史記)』 「천관서(天官書)」에 대략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사기』 「천관서」에는 약 90여개의 별자리와 500여개의 별이 수록되어 있다. 『한서(漢書)』 「천문지(天文志)」 기록에 의하면 당시 118개의 별자리, 783개의 별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진(西晉) 무제(武帝, 265 ~ 290)때 진탁(陳卓)은 그 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감덕(甘德), 석신(石申), 무함(巫咸) 등의 성도(星圖)를 참고하여 283개 별자리에서 1,464개의 별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周曉陸 2004, 송두중 2006). 이후 중국에서 하늘의 별자리 개수와 이름은 시대에 따라 약간씩 변하지만 전체 별의 개수는 1,464개로 표기하고 있다.

중국 전통 별자리 체계는 시대를 거치며 변화하는데, 『사기』 「천관서」에는 별자리를 크게 중

¹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8; <효소왕조(孝昭王條)>

²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7; <문무왕조(文武王條)>

³ 『양촌집』 권22; <천문도시(天文圖時)>

⁴ 송두중 (2006)은 “天象列次分野之圖 星宿比較分析”에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성수 및 성좌 비교를 위해 중국의 『삼가성경(三家星經)』, 『보천가(步天歌)』, 『송사(宋史)』 「천문지(天文志)」 등과 다양한 비교를 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 등을 검토하여 조선 초기 규장각에 소장된 목판본 『보천가』와 중국 수대(隋代, 581 ~ 618) 왕희명 『보천가』에 대한 성수와 성좌, 별자리 연결 패턴, 별자리 설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궁(中宮), 동궁(東宮), 남궁(南宮), 서궁(西宮), 북궁(北宮)으로 나누고 있다. 반면에 『진서(晉書)』나 『수서(隋書)』의 「천문지」는 하늘의 별자리를 중궁(中宮)과 그 주위의 사방에 배치된 28수와 그 밖의 별(外星)로 분류하였다. 또한, 『개원점경(開元占經)』에서는 먼저 28수를 묘사하고 감덕(甘德), 석신(石申), 무함(巫咸)의 방법을 취하여 중관(中官)과 외관(外官)으로 나누었다. 그 후 『보천가』에 이르러 삼원(三垣) 이십팔수(二十八宿)의 체계가 등장하여 중국 고대 별자리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틀로 굳어지게 되었다.

『보천가』의 본래 명칭은 단원자보천가(丹元子步天歌)로서 단권으로 되어 있고, 중국 수(隋)나라의 단원자(丹元子)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단원자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중국의 『당서(唐書)』 「예문지(藝文志)」에 “왕희명 단원자 보천가 1권(王希明 丹元子 步天歌 一卷)”이란 기록이 나온다(이후부터 왕희명 단원자 『보천가』를 ‘중국 왕희명 보천가’ 또는 ‘왕희명 보천가’라고 표기함). 이 기록으로 왕희명이 단원자의 『보천가』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쓴 것인지, 또는 왕희명이 단원자와 동일한 인물인지가 지금까지 논란의 여지로 남아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 『보천가』가 언제 들어왔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조선 초기에 이미 『보천가』라는 명칭으로 책이 출간되었다(이후부터 조선 초기 『보천가』를 ‘조선 보천가’라고 표기함)⁵. 일반적으로 조선 보천가는 중국의 『보천가』를 그대로 옮겨와 발간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실제로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 여러 곳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보천가는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에 현재 소장되고 있고, 다양한 필사본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연구를 한 저자 중 한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필사본은 여러 부분에서 탈자와 오자(誤字)가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보천가는 여러 종류 중에서 특히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1권 1책으로 출간된 목판본을 사용하였다⁶.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천가와 비교하기 위해 사용된 중국 왕희명(王希明)의 보천가는 『신당서(新唐書)』 「예문지(藝文志)」에 수록되어 있는 판본을 사용했다. 이 내용은 『중국과학기술전적통휘(中國科學技術典籍通彙)』에 그대로 영인본으로 수록되어 있다⁷.

이 연구에서는 조선의 보천가와 중국 왕희명이 저술한 보천가를 다음의 몇 가지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두 책의 구성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였다. 둘째, 보천가에 실린 별자리의 모양과 연결 형태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서로 다르게 구성하고 있는 별들의 연결선과 별의 개수 등의 차이점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종류의 보천가에 그려진 별자리와 문장 내용의 차이점과 조선 별자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2. 조선과 중국의 『보천가』

2.1 『보천가』 구성 내용 비교

조선 보천가는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 초기의 목판본 보천가를 이용하고, 중국의 보천가는 수대(隋代) 왕희명(王希明)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보천가를 이용하였다(그림 1).

두 종류의 보천가 구성 내용을 비교하여 표 1에 정리하였다. 조선 보천가에는 본문 앞에 기술되

⁵ 표 제목이나 그림 제목에는 ‘조선 『보천가』’ 또는 ‘(중국) 왕희명 『보천가』’로 표시함

⁶ 『韓國科學技術史大系』 「天文學篇6」의 수록자료

⁷ 『中國科學技術典籍通彙』 「天文卷」의 수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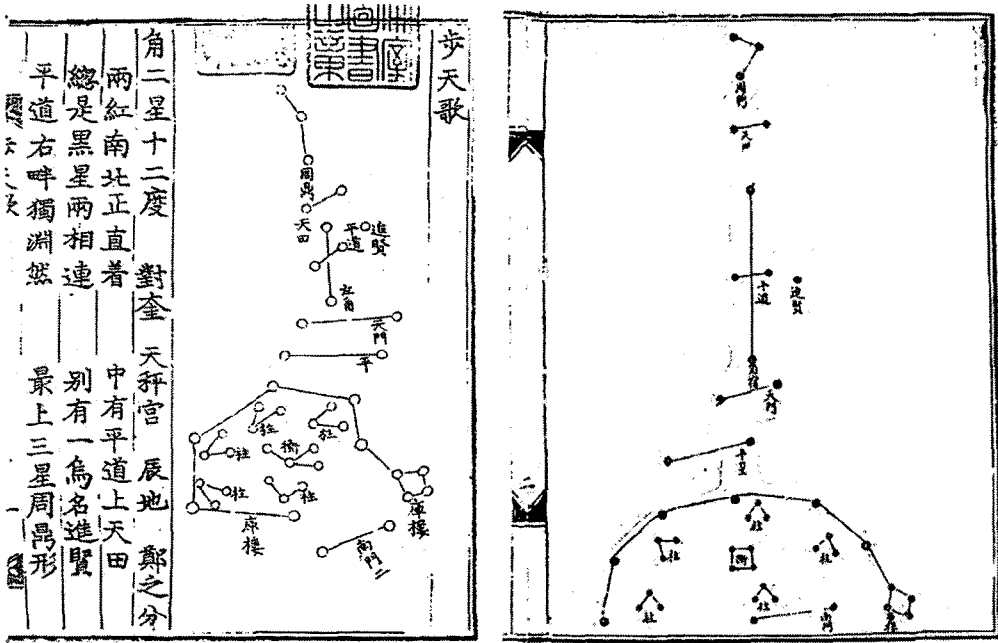


그림 1. 조선 「보천가」(좌)와 중국 왕희명 「보천가」(우) 각수.

표 1. 조선과 중국 왕희명 「보천가」 구성 내용.

구분	朝鮮 「步天歌」	王希明 「步天歌」
서문	없음	있음
28宿	角亢저房心尾箕 斗牛女虛危室壁 奎婁胃昂畢자參 井鬼柳星張翼軫 (각각 수거성 대응별 황도 12宮, 12支, 12分國 표시)	東方 - 角亢저房心尾箕 北方 - 斗牛女虛危室壁 西方 - 奎婁胃昂畢자參 南方 - 井鬼柳星張翼軫
三垣	太微垣, 紫微垣, 天市垣	太微宮, 紫微宮, 天市垣
天河起沒	있음	없음

는 서문이 나와 있지 않으며, “보천가”라는 제목 뒤에 28수의 설명과 별자리에 해당하는 본문이 바로 나온다. 동방칠수(東方七宿), 북방칠수(北方七宿), 서방칠수(西東七宿) 및 남방칠수(南方七宿)의 구분 없이 각수(角宿)부터 진수(軫宿)에 이르는 28수의 별자리들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태미원(太微垣), 자미원(紫微垣), 천시원(天市垣)의 순서로 삼원(三垣)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편, 중국 왕희명 보천가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당보천가(唐步天歌)”라는 서문이 나온다. 서문에는 이 보천가의 원전 출처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28수와 삼원의 별자리 체계

표 2. 조선과 중국 왕희명 『보천가』 별자리의 개수와 별의 개수.

구분	朝鮮 『步天歌』		王希明 『步天歌』		
	별자리 수	별 수	별자리 수	별 수	
28宿 (4方)	동방칠수	47	186	47	186
	북방칠수	65	400	66	406
	서방칠수	56	298	56	297
	남방칠수	46	241	47	245
계	214	1,125	216	1,134	
三垣	태미원	18	77	19	78
	자미원	37	164	37	163
	천시원	18	87	18	87
계	73	328	74	328	
합계	287*	1,453*	290	1,462	

*조선 『보천가』 본문 내용에는 있으나 별자리에서 누락된 부광(扶筐), 천기(天紀), 낭장(郎將)은 별자리의 개수와 별의 개수 합계에서 제외함.

를 밝히고 있다. 이어서 동방(東方), 북방(北方), 서방(西方), 남방(南方) 구역을 나누어 각각 7개의 별자리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태미궁(太微宮), 자미궁(紫微宮), 천시원(天市垣)의 순서로 열거하고 있다. 태미원과 자미원을 태미궁과 자미궁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삼원(三垣) 명칭에 대한 시대적 변천과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보천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에서 보이지 않는 “천하기몰(天河起沒)”이라는 내용이 삼원(三垣)의 뒷부분에 기록된 것이다. 천하(天河)는 천한(天漢)을 뜻하는 것으로 은하수를 이르는 말이다. 천하기몰에는 은하수가 분포한 위치를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된 별자리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중국 보천가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조선의 보천가와 『천문유초(天文類抄)』 등에는 모두 나타난다(이후부터 『천문유초』는 ‘천문유초’로 표기함). 다만 중국 정초(鄭樵)의 『통지(通志)』, 『천문략(天文略)』에만 조선 보천가와 거의 같은 내용이 보인다. 이 사실은 조선시대에는 은하수의 천구상 배치가 중요하고, 그 주위에 분포된 별자리를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조선 보천가의 28수 설명에는 중국에는 없는 수거성에 대응하는 별, 황도 12궁(宮), 12지(支), 속해 있는 나라의 명칭(12分)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천상열차분야지도 별자리 가장자리의 명문과 같은 내용이다.

두 보천가의 별자리와 별의 개수를 조사하여 표 2에 나타냈다. 왕희명 보천가는 290개 별자리 1,462개 별로 구성되었다. 반면에 조선 보천가에는 287개 별자리 1,453개의 별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서적의 별자리와 별 개수 차이는 조선 보천가에 누락된 부광(扶筐), 천기(天紀), 낭장(郎將) 별자리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3장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한편, 왕희명 보천가에서 별의 개수를 산출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왕희명 보천가의 ‘장수(張宿)’를 살펴보면, 장수에 속한 별 이외에도 태미원에 해당하는 장원(長猿, 4성)과 소미(少微, 4성), 그리고 자미원에 해당하는 태존(太尊, 1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예는 ‘자미원(紫微垣)’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미원에는 저수의 초요(招搖), 여수의 부상, 위수의 천구(天鉤), 필수의 오거(五車), 천시원의 여상(女床)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왕희명 보천가에서 별자리 및 별 개수를 산출할 때 중복되어 있는 별자리를 제외하고 합산해야 한다.

표 3. 수운의상대 시보시스템 작동내용과 정보.

별자리	별자리 그림에 나타난 명칭		별자리 설명에 나타난 명칭	
	朝鮮「步天歌」	王希明「步天歌」	朝鮮「步天歌」	王希明「步天歌」
각수	좌각(左角)	각(角)	각(角)	각(角)
항수	섭제(攝堤)	좌섭제(左攝堤) 우섭제(右攝堤)	섭제(攝堤)	섭제(攝堤)
방수	-	구검(鈞鈴)	조검(鈞鈴)	구검(鈞鈴)
기수	외저(外杵)	저(杵)	목저(木杵)	목저(木杵)
두수	입성(立星)	건성(建星)	입(立)	건성(建星)
우수	견우(牽牛)	우(牛)	우(牛)	우(牛)
여수	수녀(須女)	여(女)	여(女)	여(女)
	고(菰)	포과(瓠瓜)	포과(瓠瓜)	포과(瓠瓜)
	패과(敗瓜)	패과(敗瓜)	패과(敗瓜)	패과(敗瓜)
위수	내저(內杵)	저(杵)	저(杵)	저(杵)
	구(鈞)	천구(天鈞)	천구(天鈞)	천구(天鈞)
벽수	동벽(東壁)	벽(壁)	벽(壁)	벽(壁)
규수	사공(司空)	토사공(土司空)	사공(司空)	사공(司空)
누수	좌경(左梗)	좌경(左更)	좌경(左梗)	좌경(左更)
	우경(右梗)	우경(右更)	우경(右梗)	우경(右更)
	천장군(天將軍)	천대장군(天大將軍)	장군(將軍)	장군(將軍)
묘수	천아(天阿)	천하(天河)	천아(天阿)	천하(天河)
정수	동정(東井)	정(井)	정(井)	정(井)
	낭성(狼星)	낭(狼)	낭(狼)	낭(狼)
성수	직(稷)	천직(天稷)	직(稷)	직(稷)
태미원	삼공내좌(三公內坐)	삼공(三公)	삼공(三公)	삼공(三公)
	병(屏)	내병(內屏)	병(屏)	병(屏)
	오제(五帝)	오제좌(五帝座)	오제내좌(五帝內坐)	오제내좌(五帝內坐)
	삼태(三台)	상태(上台), 중태(中台) 하태(下台)	삼태(三台)	삼태(三台)
자미원	여어궁(女御宮)	어녀(御女)	어녀(御女)	어녀(御女)
	오제좌(五帝坐)	오제내좌(五帝內坐)	오제내좌(五帝內坐)	오제내좌(五帝內坐)
	대존(太尊)	태존(太尊)	대존(太尊)	태존(太尊)
	대양수(太陽守)	태양수(太陽守)	대양지수(太陽之守)	태양지수(太陽之守)
	삼공(三公)	삼공(三公)/삼사(三師)	삼공(三公)	삼공(三公)/삼사(三師)
	보성(輔星)	보(輔)	보성(輔星)	보성(輔星)
천시원	여상(女牀)	여상(女床)	여상(女床)	여상(女床)

2.2 서로 다른 이름의 별자리들

조선과 중국의 별자리 중에서 같은 별자리임에도 서로 다른 이름으로 기록한 것을 표 3에 정리하였다. 먼저 섭제(攝堤)는 조선에서는 하나의 별자리로 표기하고 있는데 반하여 왕희명 보천가에서는 좌-우(左-右) 섭제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다. 좌각(左角), 낭성(狼星), 외저(外杵), 견우(牽牛), 수녀(須女), 내저(內杵), 동벽(東壁), 동정(東井), 보성(輔星)은 중국 왕희명 보천가에서 한 음절인 각(角), 낭(狼), 저(杵), 우(牛), 여(女), 저(杵), 벽(壁), 정(井), 보(輔)로 표기하고 있다. 구(鈞), 사공(司空), 천장군(天將軍), 직(稷), 병(屏)은 왕희명 보천가에서 한 음절이 더해져서 천구(天鈞), 토사공(土司空), 천대장군(天大將軍), 천직(天稷), 내병(內屏)으로 표기하고 있다.

조선 보천가와 중국 왕희명 보천가에 나타나는 별자리 이름 중에는 한자(漢字)의 음은 같으나 서로 다른 한자(漢字)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누수의 좌경(左梗)과 좌경(左更), 우경(右梗)과 우경(右更), 여상(女牀)과 여상(女床)이 그것들이다. 여수의 고(菰)는 왕희명 보천가에서 포과(瓠瓜)

로 표기하고 있고, 별자리 설명에서도 포과(匏瓜)와 포과(瓠瓜)로 표기하고 있다. 패과(敗瓜)는 왕희명 보천가에서 패과(敗瓜)로 표기하고 있는데, 별자리 설명에서는 모두 패과(敗瓜)로 기술하고 있다. 묘수의 천아(天阿)는 왕희명 보천가에서 천하(天河)로 표기하였다.

태미원 삼공내좌(三公內坐)는 왕희명 보천가에서 삼공(三公)으로 표기하고 있다. 자미원 삼공(三公)은 3개의 별로 이루어진 두 개의 별자리로 나뉜다. 왕희명 보천가에서는 두 개의 별자리를 삼공(三公)과 삼사(三師)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삼태(三台)는 왕희명 보천가에서 상태(上台), 중태(中台), 하태(下台)로 표기하였다. 자미원의 여어궁(女御宮)은 왕희명 보천가에서 어녀(御女)로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별자리 설명에서는 모두 어녀(御女)로 쓰고 있다. 태미원의 오제(五帝)와 자미원의 오제좌(五帝坐)는 왕희명 보천가에는 오제좌(五帝座)와 오제내좌(五帝內座)로 표기하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방수(房宿)에 속한 별자리로 조선의 보천가에는 조검(鈞鈐)으로 표기 되어 있다. 이 별자리는 조선이나 중국 모두 보천가 내용에만 나타나고 각 28수 별로 그린 각 별자리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왕희명의 보천가에는 구검(鈞鈐)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조선시대 다른 보천가에 나타난 명칭과 동일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규장각 목판본의 보천가가 오기(誤記)를 한 것인지 또는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인지 단정 지을 수 없다. 규장각본이 필사본이 아니고 목판본임을 감안하면 의도적으로 명칭을 다르게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보천가 별자리에서 대(大)라고 표기한 반면 왕희명 보천가에는 태(太)로 표현한 경우가 있다. 조선 보천가 자미원의 대존(大尊)과 대양수(太陽守)를 왕희명 보천가에서 태존(太尊)과 태양수(太陽守)로 표기하고 있다. 별자리 설명에서도 두 보천가는 대(大)와 태(太)로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천문도 별자리 중에서 두드러진 차이점 중 하나는 조선 보천가 두수의 입성(立星)을 중국 왕희명 보천가에는 건성(建星)으로 표기하고 있다. 보천가 별자리 중에서 조선과 중국이 서로 다르게 적고 있는 별자리는 31개로 전체의 10.8%에 해당한다(조선 보천가의 별자리 해설에만 나오는 ‘조검’ 별자리를 포함시킴).

조선과 중국의 별자리 명칭이 다른 요인은 한자를 다르게 쓰면서도 발음을 같게 하거나, 한자의 획수가 조금 바뀌면서 발음이 차이 나는 경우, 별자리 명칭을 한 글자 줄이거나 늘려 쓰는 방식 등이다. 하지만 두수의 입성(立星)은 조금 다르다. 조선과 중국의 별자리 명칭 비교에서 밝힌 바와 같은 주요한 패턴으로 따르지 않고 있다. 다만 조선 보천가의 별자리 설명에서는 건성으로 기록하고 있다. 입(立)과 건(建)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역대 『보천가』를 살펴 볼 때 건성을 입성으로 명명한 경우는 없다(周曉陸 2004).

한편, 조선 초기 천문서적인 천문유초의 별자리에는 입성으로 표기하고, 별자리 설명에는 건성으로 적고 있다⁸. 천문유초의 입성에 대한 설명을 보면 “...건성과 두성의 사이는 해와 달과 5행성이 다니는 길이니, 일을 꾸미는 것이 되고, 하늘의 복이 되며, 하늘의 말이 된다. 동요하면 사람이 피로하게 되고, 달무리가 지면 교통이 나타나며 말과 소에 질병이 든다. 월식이 일어나고 5행성이 범하여 머무르면, 대신이 서로 참언을 하고, 신하가 임금을 제하러는 일을 꾸민다. 또한 육로나 수로가 불통되고, 큰 물난리가 있게 된다(建斗之間 七曜之道 爲謀事 爲天鼓 爲天馬 動搖則人勞 月暈蛟龍見牛馬疫 月食五星犯守 大臣相參 臣謀主 亦爲關梁不通 有大水).”라고 적고 있다. 즉 입성의 위치에서 월식이 일어나거나 5행성이 있으면 나라에 커다란 변고가 생긴다고 기술하고 있어 중요한 별자리로 인식

⁸李純之, 『천문유초(天文類抄)』, 두수(斗宿)

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 숙종(肅宗, 1674 ~ 1720)대에 복각한 천상열차분야지도, 남병길의 『성경(星鏡)』(1861), 이준양의 『신법보천가(新法步天歌)』(1862)의 별자리에서 입성은 중국 천문도와 같은 건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조선 초기의 보천가류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자리 명칭에는 입성으로 썼고, 이후 언제 부터인가 건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듯하다. 그러나 중국은 계속 건성이라는 별자리 이름을 사용해 왔다.

3. 별자리 연결 유형 비교

조선 보천가의 28수(宿)와 삼원(三垣)의 별자리를 중국 왕희명 보천가와 비교하여 연결 유형을 조사하였다. 28수는 4방위 체계로 나누어 동방, 북방, 서방, 남방 순서로 기술하였으며, 삼원은 태미원, 자미원, 천시원의 영역으로 기술하였다.

보천가의 별자리 그림을 분석하는데 분류의 보편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서로 다르게 보이는 별자리 중 외형적 모습에서 특정한 다각형 구조를 갖는 경우, 반복된 결합방식의 별자리가 연결되거나 분리된 구조로 나타나는 경우, 28수(宿)의 수거성 별자리가 인접 별자리와 결합한 구조로 나타난 경우, 기타 연결선이 다른 형태의 별자리인 경우, 별자리의 별 개수가 서로 다른 경우인 5종류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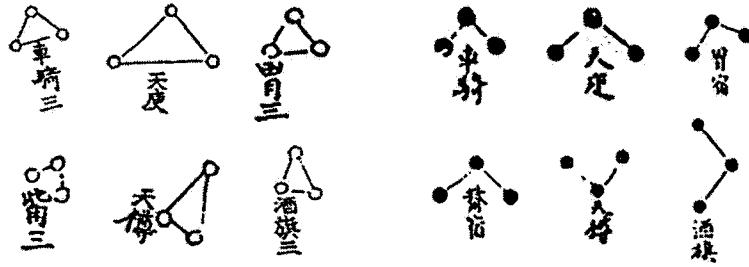
3.1 28수의 별자리 연결 유형

서로 다르게 보이는 별자리 중 외형적 모습에서 특정한 다각형 구조를 갖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림 2에 개수가 세 개 이상인 경우 별자리의 연결 모습이 열린 구조인지 닫힌 구조인지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별의 연결에서 닫힌 모양과 열린 모양은 별의 개수에 따라 두 나라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3개, 5개, 7개, 14개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를 보면 조선은 닫힌 모양으로 중국은 열린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 반면에 4개, 6개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의 경우, 조선 보천가는 열린 모양인 반면 왕희명 보천가는 닫힌 모양으로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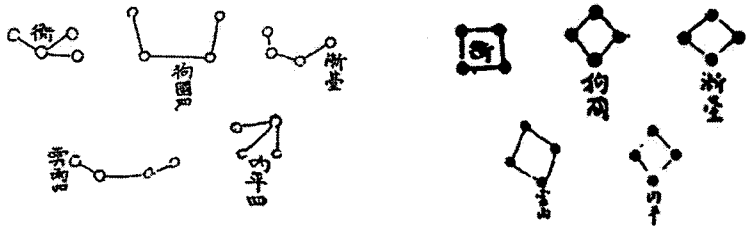
대부분 별들은 별의 개수에 따른 다각형 구조의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데 귀(鬼)의 경우는 다르다. 조선은 닫힌 모양의 4각형으로 중국에서는 열린 구조로 그렸다. 하지만 귀는 4개의 별로 이루어진 다각형 구조이지만 가운데 별을 합하여 귀오(鬼五)의 명칭으로 부르고 있어 그림 2에서 5개의 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따라서 귀오는 다각형의 닫힌 모양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6개 이상의 별자리에서는 상호 비교 가능한 별자리가 한 개뿐이어서 별의 개수에 따른 두 나라 별자리 모양을 특징짓기는 어렵다.

그림 3은 묶인 별이 서로 연결 또는 분리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28수의 수거성 별자리가 인접 별자리와 연결된 별자리들을 나타낸 것이다. 중국에서는 별들을 3개씩 묶어서 별자리를 표현한 반면, 조선에서는 전체를 연결하여 별자리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저수의 기관(騎官), 심수의 적졸(績卒), 실수의 우림(羽林)에서 나타난다. 입성(立星)은 조선 보천가에서 3개별씩 묶임 구조로 나타내고 중국은 연결 모양 별자리 구조로 그리고 있다.

한편 수거성 별자리와 인접 별자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방(房)과 조검(鈞鈴), 위(危)와 분묘(墳墓), 실(室)과 이궁(離宮), 필(畢)과 부이(附耳), 삼(參)과 별(伐), 정(井)과 월(鉞), 진(軫)과 장사(長沙)·좌할(左轄)·우할(右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보천가에 나타난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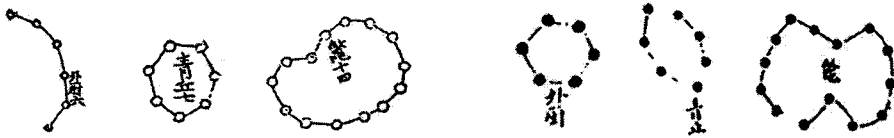
(a) 별 개수가 3개인 별자리: 저수 저기(車騎), 루수 천유(天庖), 위수 위(胃), 자수 자, 정수 천준(天樽), 류수 주기(酒旗)



(b) 별 개수가 4개인 별자리: 각수 형(衡), 두수 구국(狗國), 우수 점대(漸臺), 벽수 운우(雲雨), 성수 내평(內平)



(c) 별 개수가 5개인 별자리: 미수 구(龜), 필수 오거(五車), 귀수 귀(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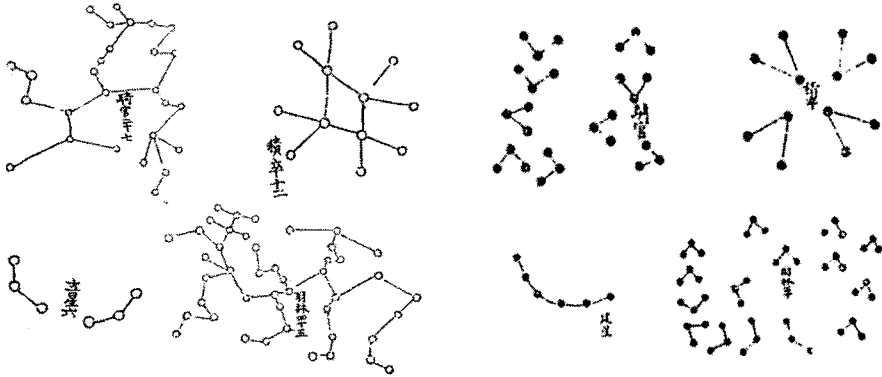


(d) 별 개수가 6개, 7개, 14개인 별자리: 귀수 외주(外廚), 진수 청구(靑丘), 두수 별(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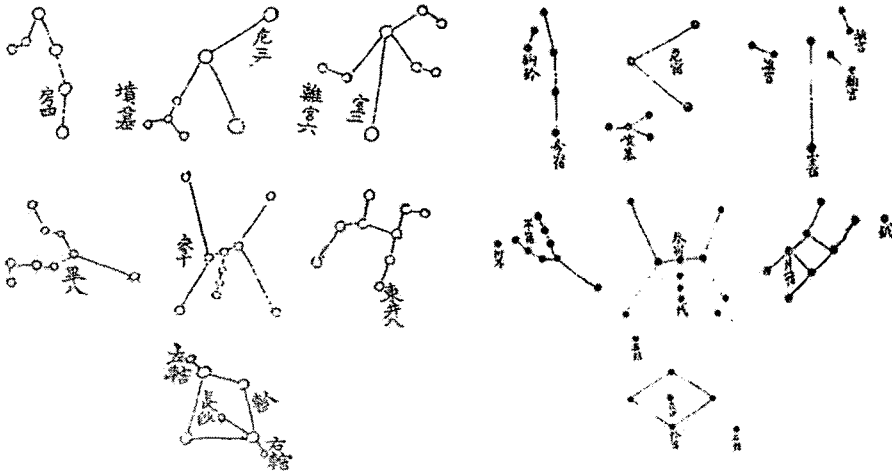
그림 2. 별자리 연결이 열린 모양과 닫힌 모양 구조인 28수 별자리들(17개 별자리). 좌측: 조선 『보천가』, 우측: 왕희명 『보천가』

으로 왕희명 보천가에는 나오지 않는다.

앞서 분류한 연결 패턴 이외의 다른 형태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림 4는 연결선이 다른 형태인 28수 별자리를 나타낸 것이다. 미수의 미(尾), 우수의 천전(天田), 여수의 십이국(十二國)과 해중(奚仲), 실수의 뇌전(雷電)과 팔괴(八魁), 등사, 벽수의 부질, 묘수의 묘(昴)와 추고, 정수의 호(弧)와 시(矢), 귀수의 천사(天社), 성수의 성(星)과 현원(軒轅), 익수의 익(翼)과 동구가 서로 다르게 연결되어 있다.



(a) 세 개씩 묶인 별이 연결 또는 분리: 저수 기관(騎官), 심수 적졸(續卒), 두수 입성(立星), 실수 우림(羽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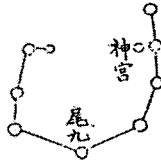


(b) 수거성 별자리가 인접 별자리와 연결: 방(房)과 조검(鈞鈐), 위(危)와 분묘(墳墓), 실(室)과 이궁(離宮), 필(畢)과 부이(附耳), 삼(參)과 벌(伐), 정(井)과 월(鉞), 진(軫)과 장사(長沙)·좌할(左轄)·우할(右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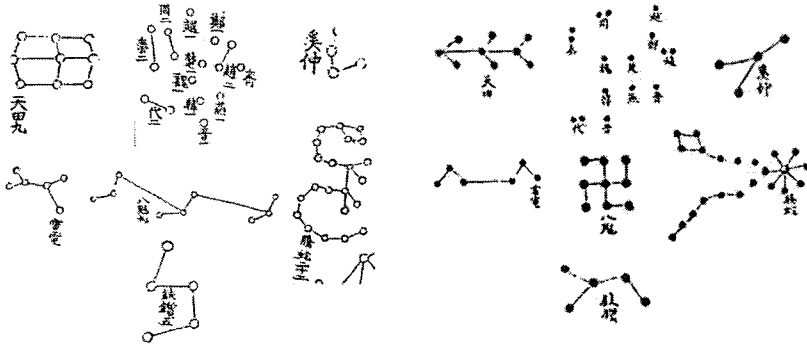
그림 3. 세 개씩 묶인 별이 연결 또는 분리된 모습과 수거성 별자리가 인접 별자리와 연결(11개 별자리). 좌측: 조선 『보천가』, 우측: 왕희명 『보천가』

조선과 중국의 연결선이 다른 별자리 그림을 비교하였다. 그림 5에 남방칠수 중 하나인 성수(星宿)를 조선의 다른 천문도의 별자리 그림과 비교해 보면, 조선 초기 보천가, 천문유초, 천상열차분야지도에는 '3'자 모양의 동일한 형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중국의 천문도 영향으로 조선후기에 제작된 『신법보천가』에는 아래쪽에 마름모꼴 모양을 한 중국 보천가 계통의 별자리 모습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별자리의 연결선을 다르게 그려놓은 것 외에도 조선과 중국 별자리 배치의 상대적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별자리의 배치각도가 조금 또는 심하게 바뀐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별자리 연결은 객관적인 분류 패턴으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별자리들은 이번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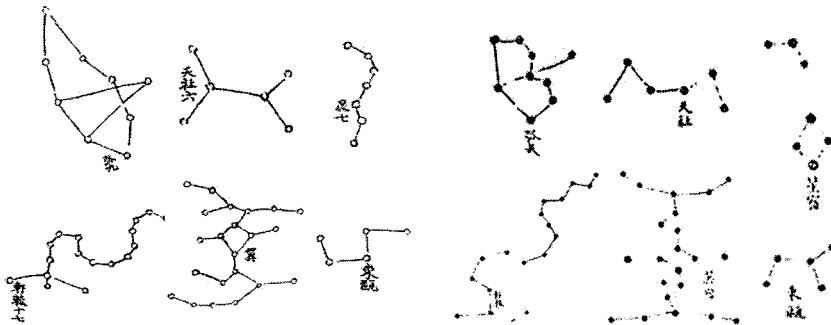
(a) 동방칠수: 미수 미(尾)



(b) 북방칠수: 우수 천전(天田), 여수 십이국(十二國), 여수 해중(奚仲), 실수 뇌전(雷電), 실수 팔괴(八魁), 실수 등사, 벽수 부질



(c) 서방칠수: 묘수 묘(昴), 묘수 추고



(d) 남방칠수: 정수 호(弧)와 시(矢), 귀수 천사(天社), 성수 성(星), 성수 현원(軒轅), 익수 익(翼), 익수 동구

그림 4. 연결선이 다른 형태의 28수 별자리들(16개 별자리). 좌측: 조선 『보천가』, 우측: 왕희명 『보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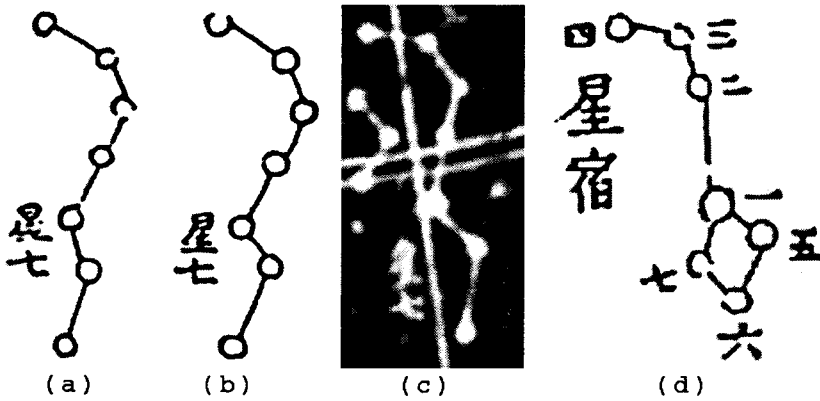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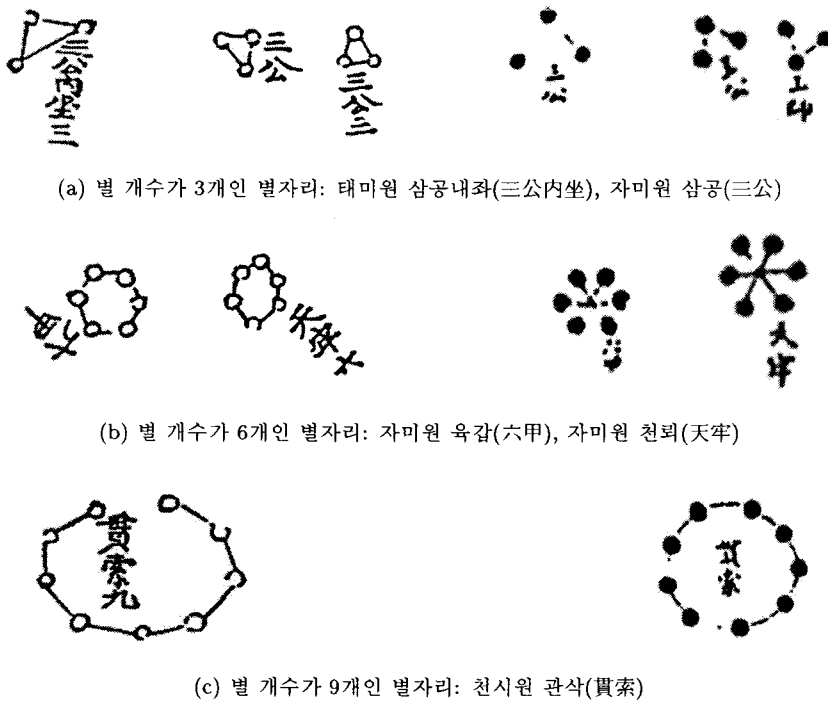


그림 5. 조선 『보천가』(a), 『천문유초』(b), 천상열차분야지도(c), 『성경』(d)의 성수 별자리.



(a) 별 개수가 3개인 별자리: 태미원 삼공내좌(三公内坐), 자미원 삼공(三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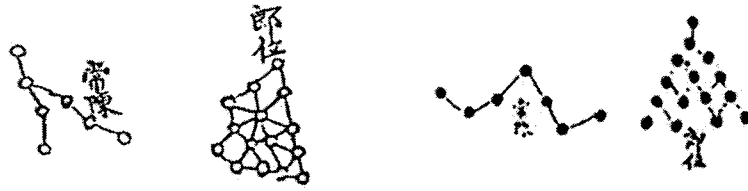
(b) 별 개수가 6개인 별자리: 자미원 육갑(六甲), 자미원 천뢰(天牢)

(c) 별 개수가 9개인 별자리: 천시원 관삭(貫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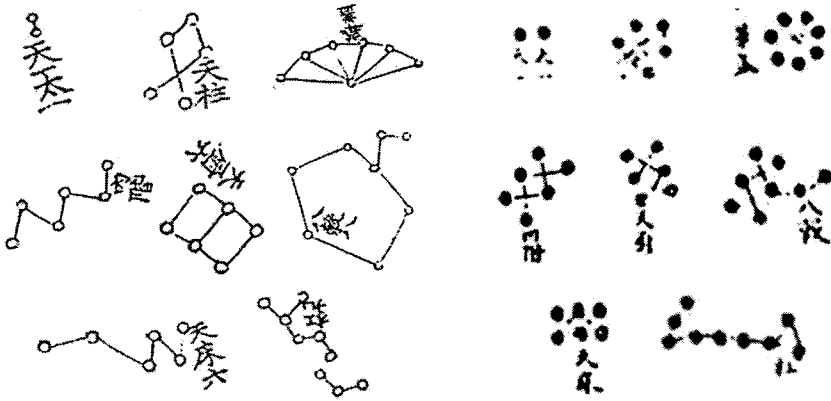
그림 6. 별자리 연결이 열린 모양과 닫힌 모양 구조인 삼원 별자리들(5개 별자리). 좌측: 조선 『보천가』, 우측: 왕희명 『보천가』

3.2 삼원의 별자리 연결 유형

동일한 별자리를 그릴 때, 별을 연결하는 연결 패턴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삼원의 별자리 중에서 연결선이 서로 다른 것들을 조사하였다. 그림 6은 별자리 연결이 열린 모양과 닫힌 모양



(a) 태미원: 상진(常陣), 낭위(郎位)



(b) 자미원: 천(天)과 태(太), 천주(天柱), 화개(華蓋), 내계(內階), 천주(天廚), 팔곡(八穀), 천상(天床), 강



(c) 천시원: 시루(市樓)

그림 7. 연결선이 다른 형태의 삼원 별자리들(11개 별자리). 좌측: 조선 『보천가』, 우측: 왕희명 『보천가』

구조인 삼원 별자리들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7은 연결선이 다른 형태인 삼원 별자리들을 나타낸 것이다. 28수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경향은 세 개의 별로 구성된 삼각형 모양이다. 이 경우는 태미원의 삼공내좌(三公內坐)와 자미원의 삼공(三公)으로 2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28수 별자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에서 조선은 닫힌 삼각형 구조를, 중국은 열린 삼각 구조를 선호한다는 패턴에 잘 일치한다.

자미원에 있는 북두칠성을 가운데 두고 조선의 보천가는 두(斗) 부분과 표(杓) 부분에 각각 삼공(三公)이라는 동일한 명칭의 두 별자리를 위치시키고 있다. 반면에 왕희명의 보천가는 두(斗) 부분에는 삼사(三師)를 두고 표(杓) 부분에는 삼공(三公)을 두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자미원의 삼공은 조선 보천가에서 모두 여섯 개의 별로 되어 있지만 왕희명 보천가에서는 삼공(三公)과 삼사(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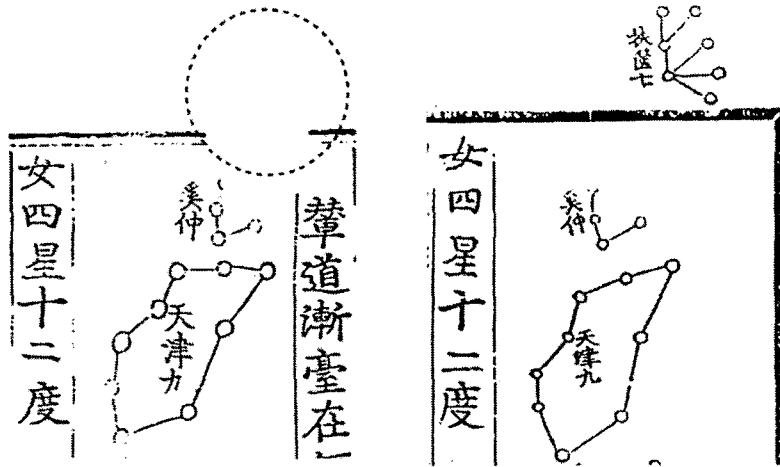


그림 8. 조선 『보천가』의 부광 별자리 위치(좌)와 『천문유초』의 부광 별자리(우).

師)로 구분하고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미원의 삼공과 삼사는 하나의 별자리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 삼공은 중국의 경우 태미원에도 나타난다. 태미원의 삼공(三公) 위에는 구경(九卿)이라는 별자리가 있다. 삼공과 구경의 모양과 배치방법은 자미원의 삼공과 삼사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이 내용이 『진서(晉書)』, 『천문지(天文志)』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섯 개의 별로 이루어진 자미원 육갑(六甲)과 천뢰(天牢)는 육각형 구조를 나타내는데 반해 왕희명 보천가에서는 방사선 모양으로 뻗어나간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런데, 왕희명 보천가 28수에서 귀수의 외주(外廚)가 육각형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보천가에서 육각형 패턴은 뚜렷한 특징이 될 수 없다. 아홉 개의 별로 이루어진 천시원의 관삭(貫索)은 중국에서 달린 구조로 조선에서는 열린 구조로 그렸다.

3.3 누락된 별자리

조선 보천가에서 별자리 설명에는 있지만 별자리 그림이 누락된 경우가 있다. 부광(扶筐), 천기(天紀), 낭장(郎將)이 그것들이다. 그림 8은 보천가의 부광 별자리 위치와 천문유초의 부광 별자리를 비교한 것이다. 부광에 대한 보천가 내용을 보면 “일곱 개의 짙은 검은색(烏色) 별이 해중(奚仲)옆에 있는 것이 부광(扶筐)이다(七烏仲側扶筐星).”라고 적고 있다. 천문유초에는 부광 별자리가 그려져 있으나 보천가에는 그려져 있지 않다. 보천가를 보면 위쪽 선(목판본 외곽 안쇄선)이 끊어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천문유초에서 부광을 그려 넣는 위치와 일치한다. 따라서 보천가의 부광은 목판본에서 별자리 부분이 떨어져 나갔거나 보천가를 편찬할 때 발생한 누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9는 조선 보천가의 낭장(郎將) 별자리 위치와 천문유초의 낭장 별자리를 비교한 것이다. 낭장은 한 개의 별로 이루어진 천시원의 별자리이다. 조선 보천가에서 별 이름은 표기되어 있으나 별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천문유초에서는 별과 별자리 명칭이 함께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낭장은 목판본에서 별자리 부분이 떨어져 나갔거나 보천가를 편찬할 때 실수에 의한 누락으로 보인다. 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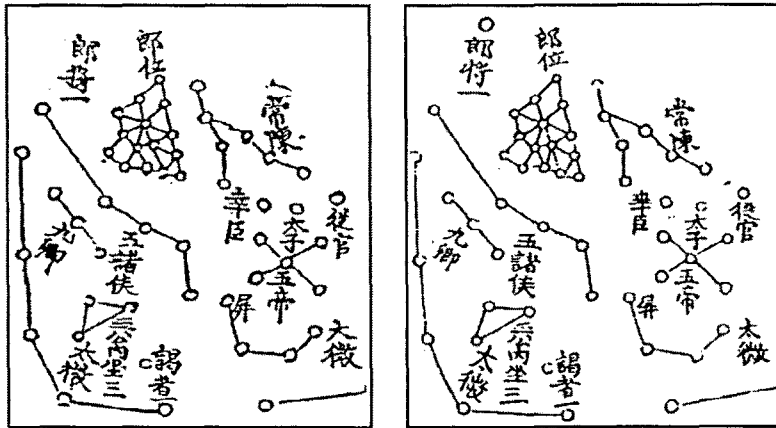


그림 9. 조선 「보천가」의 낭장 별자리 위치(좌)와 「천문유초」의 낭장 별자리(우).

다른 보천가 판본에는 낭장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기(天紀)는 하나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선 보천가의 별자리 설명에만 나와 있을 뿐 별자리 그림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별은 천문유초 별자리 그림 뿐 만 아니라, 태조본 천상열차분야지도에도 나오지 않는다. 이는 천기가 중국의 천문도에는 있지만 조선 천문도에는 나오지 않는 별자리임을 알려준다.

한편, 조선과 중국의 별자리 비교에서 보천가 이후 조선의 다른 자료에서 새로 등장하는 별자리도 있다. 조선이나 중국 왕희명 보천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조선 태조 4년 둘에 새겨 만든 한국의 석각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등장하는 두 개의 별자리가 있다. 종대부(宗大夫)라는 별은 네 개로 이루어진 별자리로 중국 천문도에는 나오지 않는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만 보이는 별자리로 알려져 있다(박경규 1995, 나일성 1996, 박창범 1998). 이 외에 조선 보천가에 나오지 않는 별자리로 두 개의 별로 이루어진 토공(土公)이 있다. 토공은 조선의 보천가에만 빠져있을 뿐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중국 천문도에 등장한다.

종대부라는 별자리 명칭은 조선의 보천가나 천문유초와 같은 천문도에는 등장하지 않고 다만 천상열차분야지도에만 나타난다.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사용하는 고유한 별자리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종대부가 천상열차분야지도에 처음 나타나는 우리의 고유한 별자리가 아니라 중국의 문헌에서 이미 그 존재가 언급되고 있음이 제기되었다(이용복 2008). 종대부와 관련된 중국의 자료를 살펴보면, 『진서(晉書)』, 『천문지(天文志)』와 『수서(隋書)』, 『천문지(天文志)』에 다음과 같은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 “宗正二星 在帝座東南 宗大夫也”. 즉, 종정의 두 별은 제좌(帝座) 동남쪽에 있으며 이를 종대부(宗大夫)라고도 한다. 이외에도 『성경(星經)』, 『송사(宋史)』, 『관상완점(觀象玩占)』 등의 책에도 나타난다(蔣廷錫 1993). 또한 진준규(1978)의 연구에서도 종정(宗正)은 종대부(宗大夫)이고, 종실(宗室)의 상(象)이며 왕을 보좌하는 퍼로 맺은 신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종대부(宗大夫)가 우리나라 고유한 별자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의문점이 제기된다.

앞서 살펴본 종대부 4성과 천기 1성은 조선과 중국에서의 독특한 별자리이면서 별 개수의 차이를 얘기할 때 거론되는 별자리이다. 이상과 같이 28수의 부광(扶筐), 태미원의 낭장(郎將)은 조선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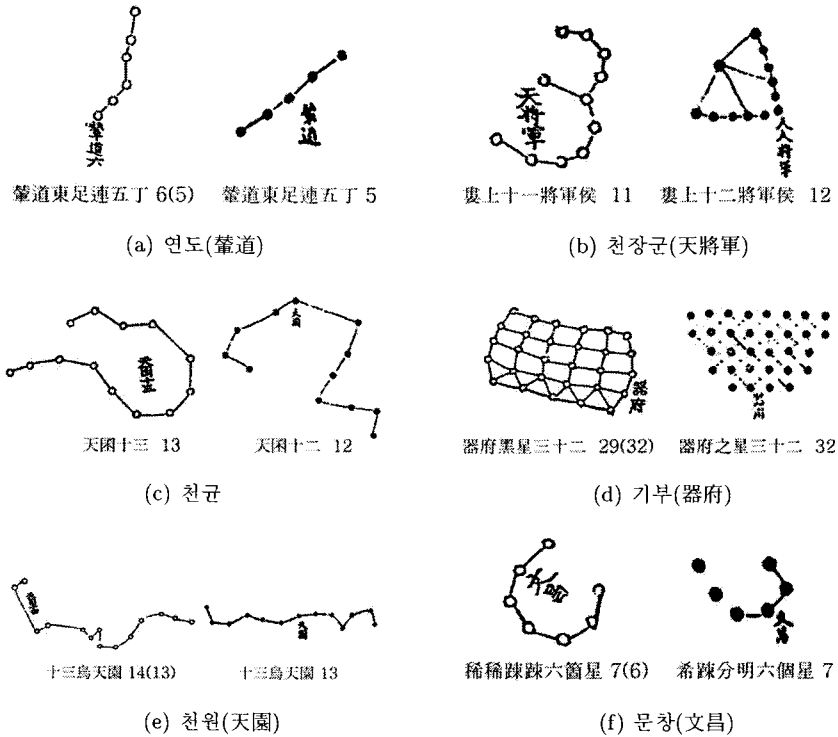


그림 10. 별 개수가 다른 별자리(6개 별자리). 각 별자리에서 좌측은 조선『보천가』, 우측은 왕희명『보천가』이다. 별자리 설명내용 옆의 숫자는 별자리 그림에 나타난 실제 별 개수이고, 괄호 안의 숫자는 별자리 설명내용에서 밝힌 별 개수임. 실제 별 개수와 설명내용의 별 개수가 일치할 경우 괄호를 생략함.

천가의 편집과정에서 실수에 의한 누락일 가능성이 크다. 누락된 천기(天紀) 별자리를 합해 모두 세 개의 별자리, 아홉 개의 별이 조선 보천가에는 보이지 않는다.

3.4 별 개수가 다른 별자리 해석

그림 10은 조선 보천가와 중국 왕희명 보천가에서 별의 개수가 다른 별자리를 나타낸 것이다. 별자리 설명내용 옆의 숫자는 별자리 그림에서 나타난 실제 별 개수이고 괄호안의 숫자는 별자리 설명내용에서 밝힌 별 개수이다. 조선 보천가에서 별자리 명칭과 설명 내용을 보면 서로 다르게 표기되기도 하고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다.

연도(輦道)는 조선에서 6개 별로, 왕희명 보천가에서는 다섯 개의 별로 그려놓았다. 하지만 조선의 별자리 설명에는 그림의 개수와 달리 ‘연도동족연오정(輦道東足連五丁)’이라고 하여 다섯 개의 별로 기술하고 있다. 천장군(天將軍)은 별자리 설명에서 ‘누상십일장군후(婁上十一將軍侯)’로 열 한개 별로 기록하고 있으나 중국의 설명에는 ‘누상십이장군후(婁上十二將軍侯)’로 열두 개 별로 기록하고 있다.

천균은 조선의 별자리 그림과 설명에서는 ‘천균십삼’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중국의 별자리 그림과 설명에는 조선과 달리 ‘천균십이’로 적고 있다. 천원(天園)은 두 나라의 별자리 그림에 나타난 별

개수는 서로 다르지만 별자리 설명에는 같다. 조선 보천가 별자리 그림에서는 ‘천원십사(天園十四)’로 표기하고 있으나, 별자리 설명에는 조선과 중국 모두 13개로 적고 있다. 기부(器府)는 별 개수가 무려 세 개나 차이가 나고 별자리를 연결하는 방식도 다르다. 별자리 설명 내용에서 조선은 ‘기부혹성삼십이(器府黑星三十二)’, 중국은 ‘기부혹성삼십이(器府黑星三十二)’로 표기하고 있어 모두 서른두개의 별로 적고 있다. 문창(文昌)은 천원의 별과 마찬가지로 별자리 설명에서는 두 나라 모두 여섯 개의 별로 적고 있으나 조선 별자리에서는 일곱 개의 별을 그리고 있다.

이상의 여섯 개의 별자리 중에서 별자리 그림과 별자리 설명이 일치하는 것은 천장군과 천균 별자리이다. 연도, 천원, 기부, 문창은 별자리 그림과 별자리 설명에 서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네 개의 별자리는 중국과 조선의 설명은 같지만 조선 보천가 별자리의 그림이 다르게 그려진 것들이다. 즉, 조선 보천가의 본문은 중국의 별 개수를 따랐지만 별자리 그림에서 의도적인 변화를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서로 별 개수가 다른 별자리들에서 별의 개수를 모두 합해 보면 총합은 같아진다. 이것은 전체 별자리와 별자리 개수를 정하였을 때 하나의 별자리 개수를 의도적으로 변경하면 또 다른 별자리에서 반드시 별 개수를 조정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조선 보천가에서 별 개수에 대한 의도적 조정을 했음은 명확한 사실이며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8수와 삼원을 종합해 볼 때 조선 보천가의 287개 별자리 중에서 66개 별자리인 22.9%가 다른 연결방식을 따르고 있다. 즉, 중국 왕희명 보천가를 그대로 따르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조선 보천가가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 초기의 보천가와 왕희명 보천가의 별자리 그림은 많은 부분에서 서로 비슷하지만, 동시에 각각 고유한 특징이 함께 공존하여 별자리 연결 유형에서 일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4. 『보천가』 별자리와 문헌 분석

4.1 28수의 방위와 분야 표시 방법

보천가에는 별자리 그림과 함께 별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조선과 중국의 보천가에 기록된 별자리 설명은 여러 곳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국 왕희명 보천가는 동방, 북방, 서방, 남방의 순서로 7수(七宿)씩 배열하면서 각 수(宿)마다 그에 해당하는 별들을 운율에 맞추어 칠언으로 기술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 보천가는 개개의 별들을 칠언의 내용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각 별자리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을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 별자리(宿)에 소속된 별의 개수, 천문도 상에서 대칭되는 위치에 있는 별자리(宿)의 명칭, 별자리가 포함된 황도 수대(獸帶, zodiac)의 이름, 별자리의 방위와 그에 해당하는 분국(分國)을 명시하고 있다(그림 1 참고). 특히 황도 12궁의 내용은 서양에서 전래된 것으로 조선의 보천가와 함께 1395년(태조 4)에 제작한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에도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황도 12궁 외에도 조선 보천가에서만 보이는 별자리의 12방위와 12분국(分國), 그리고 28수 별의 개수와 해당영역 등도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내용과 완전하게 일치한다.

조선 보천가는 전체적인 구성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삼원 28수의 별자리 체계를 따랐다. 이는 조선 초기에 이미 중국 한나라 이후 체계화된 삼원 28수 체계를 우리나라 별자리에 도입한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조선 보천가는 중국의 것을 그대로 복사하듯이 모방한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차이점도 존재한다. 즉, 조선 보천가는 앞에서 보인 황도 12궁 등 여러 곳에서 조선 초기의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와 공통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다른 조선의 천문학 특징이 남아 전해지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4.2 28수의 내용 설명

각 별자리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조선 보천가는 책의 전반에 걸쳐 일부 글자 또는 자구(字句)를 중국의 보천가와 다르게 적고 있다. 그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 다른 글자 또는 자구 내용을 살펴보면 별의 색깔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예를 들면 각수(角宿)의 경우, 조선 보천가는 “角下天門紅左平”로 적고 있는 반면, 왕희명 보천가는 “角下天門左右星”로 적고 있다. 조선 보천가에는 별의 색깔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데 “홍(紅)”, “적(赤)”, “흑(黑)”, “황(黃)”, “백(白)”, “오(烏)”로 표현하고 있다.

보천가는 조선시대에 여러 목판본과 활자본으로 인쇄되어 출간되었으며, 민간에서도 많은 필사본이 만들어졌다. 필사본 보천가에도 별에 색을 넣어 그린 채색천문도가 남아 있는데, 별의 색깔은 오방색(五方色: 靑, 黃, 赤, 白, 黑)을 이용한 것으로 짐작되는 다섯 색으로 주로 표현하고 있다. 별에 색깔을 표시한 것은 중국의 자료에도 나타나는데, 중국의 石云里(1998)는 보천가에 나오는 별의 색깔이 중국의 감덕(甘德), 석신(石申), 무함(巫咸)의 성도를 집대성한 삼가성경(三家星經)에 기원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보천가에서 28수에 속하는 별자리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적(赤), 홍(紅), 흑(黑), 황(黃), 백(白), 흑(黑), 오(烏) 등의 7가지 색깔로 표시한 곳이 많이 나타난다. 28수에 속하는 별자리마다 고유한 색깔을 지정하는 것은 그 별자리 명칭의 기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周曉陸 2004). 중국 천문도와 별자리들을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천문학자로 석씨(石氏), 감씨(甘氏), 무함(巫咸) 등을 들고 있다. 이 별자리들의 색깔이 이 세 사람과 관련을 시킨 것이 삼가성(三家星) 이론이다.

周曉陸(2004)은 그의 연구에서 삼가성(三家星)과 관련을 시켜 조선의 보천가를 비롯하여 중국 유형의 보천가 8종류를 대비시켜 28수에 속한 각 별자리들의 색깔을 지칭하고 있는데 조선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색깔을 지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한 종류인 북초(北抄) 보천가를 제외한 상당수가 별자리 색깔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조선의 보천가는 그 원문이 중국에서 유입되었어도 우리 나름대로 체계화시켜 별의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삼가성(三家星)에 의해 보천가의 별자리 색깔이 정해졌다고는 하나 이 삼가(三家)인 석씨(石氏), 감씨(甘氏), 무함(巫咸)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살던 시대와 누구인가는 빈약한 사서에 의존할 뿐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별자리 색깔의 근원이 중국이 전국시대 이후 내려오는 음양오행과 관련된 오방색(五方色)과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본다.

둘째, 중국과 다른 내용 중에서, 조선 보천가의 별자리 설명에는 “오(烏)”자로 표기한 곳이 여러 곳 보인다. 예를 들어 두수(斗宿)의 설명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狗國四方계下生”으로 표기했으나 조선은 “狗國四鳥鷄下生”로 사용했다. ‘오(烏)’자는 검은다는 의미와 까마귀라는 두 가지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烏’를 까마귀(새)로 표현했다면 여러 곳에서 문맥과 어긋나게 된다. 천문유초의 설명을 살펴보아도 ‘烏’를 까마귀로 표현한 곳은 없다.

셋째, 다른 글자를 사용하여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곳이 여럿 있다. 그러나 표현상의 방법만 다를 뿐 별자리 모양이나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삼수(參宿)의 별자리 설명에서 조선은 “伐有三星腹裏深”으로 중국은 “伐有三星足裏深”으로 다르게 표현해서 별(伐)의 위치를 나타낼 때, 배를 의미하는 복(腹)과 아래를 의미하는 족(足)으로 달리 적고 있다. 또한 저수 별자리 설명에서, 조선은 “車騎三鳥官下位”로 적은 반면 중국에서는 “騎官下三車騎位”로 기록하여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28수 별자리 설명에서 일부 별자리의 설명이 조선과 중국 왕희명 보천가에서 다르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의 보천가에는 중국과 달리 별의 색깔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전통 별자리 표현방법인 별의 밝기 차이뿐 아니라, 각각의 별을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들 별의 색이 실제 별의 온도와 관련이 있는 스펙트럼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보천가에서 28수의 각 별자리를 지칭하는 별자리로 사용한 색깔이 중국과 일부 다르거나 또는 다른 표현 방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중국과 모든 것이 일치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조선 보천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을 조선후기에 나타나는 채색천문도와 관련시켜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4.3 삼원의 내용

삼원(三垣; 太微垣, 紫薇垣, 天市垣)의 별자리 설명에서 보이는 조선과 중국의 차이점은 28수의 그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28수 별자리 설명에서 두 나라의 차이는 일부 글자나 표현 방법의 차이만이 보였지만 삼원에서는 문장 전체가 다르거나 새로운 문장이 보이기도 한다.

이 보천가의 삼원(三垣)에 나타난 다양한 특징을 周曉陸(2004)은 그의 연구에서 각 관본의 특징을 일일이 지적하고 비교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주로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관본을 중심으로 자구(字句)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중국의 관본과 비교하여 다른 글자를 사용하거나 삽입한 부분을 일부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태미원(太微垣)에서는 중국의 “宮外明堂布政宮”을 조선에서는 “宮外明堂希政宮”으로 사용한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周曉陸(2004) 연구와는 별도로 일일이 글자 하나하나 비교하여 글자와 자구를 상호 비교하여 그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태미원의 경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에는 없는 다음 네 구절의 문장이다. “東垣上相次相陳 次將上將相連明 西面垣牆依此數 但將上將逆南去”로 기록된 문장은 태미원의 동쪽과 서쪽 담장 주변을 설명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별자리인 “상장(上將)”이나 “차장(次將)”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중요시 여기는 별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에 색깔을 표시하거나 일부 다른 글자를 사용한 것은 28수 별자리의 특징과 비슷하다.

둘째, 자미원(紫薇垣)의 경우,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일부 문장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기록한 다음의 문장을 “上宰少尉兩相對 少宰上輔次少輔 上衛少衛次上丞 後門東邊大垣府 門西 환作一少丞 以次却向前門數” 조선에는 “上宰少宰上輔星 少輔上衛少衛丞 相對垣西上丞位 少衛方當上衛明 次第相連於少輔 上輔少尉接樞戶”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문장의 일부 글자를 다르게 사용하거나 28수와 마찬가지로 별의 색깔을 표시한 곳도 보인다. 특히, “天倉三赤戈上懸” 부분은 조선에만 있는 기록인데 천창에서 부딪칠 창(手+倉)이 곳집 창(倉)으로 잘못 써지기도 하였

다.

셋째, 천서원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별의 색깔이나 일부 글자가 다르게 적혀 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선에만 있는 다음의 여덟 구절 문장이다.

“魏趙九河及中山 齊并吳越徐星是 却從東海至幽燕 漸歸南海宋門前
西門相對韓而楚 梁并巴蜀至秦躔 東周鄭晉連相繼 河間直至河中止”

4.4 천하기물의 내용

은하수의 내용이 나와 있는 천하기물(天河起沒)은 왕희명 보천가에서 다루어 지지 않은 내용이다. 조선 보천가에 나오는 천하기물은 은하수를 나타낸 것으로 천한(天漢)이라고 한다. 은하수는 동방(東方)의 기수(箕宿)와 미수(尾宿) 사이에서 시작해서 남북으로 두 길로 나누어져 있다. 남쪽으로 향한 길은 부열(傳說)에서 어(魚)와 천연(天淵), 천약, 천변(天弁), 하고(河鼓)를 지난다. 북쪽으로 향한 길은 귀(龜)로부터 기수(箕宿)를 통해 남두(南斗)의 머리쪽[과(魁)]으로 연결해 좌기(左旗)를 지나며 남쪽 길의 천진(天津)에서 합쳐진다.

서로 합해진 길은 서남방으로 향한다. 포과(匏瓜), 인성(人星), 저(杵), 조보(造父), 등사(騰蛇), 왕량(王良), 부로(附路), 각도(閣道), 대릉(大陵), 천선(天船), 권설(卷舌)로 이어져 남쪽으로 향한다. 은하수는 오거(五車)와 북하(北河)를 거쳐 남쪽을 향하면서, 동정(東井), 수위(水位), 남하(南河), 궤구(闕丘)를 지난다. 이후 천구(天狗), 천기(天紀), 천직(天稷)을 지나며, 성수(星宿; 七星)의 남쪽으로 은하수가 진다.

5. 결과 및 토의

조선과 중국의 전통 별자리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조선 초기 조선 보천가와 중국의 보천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보천가의 별자리 그림을 서로 비교하여 별과 별자리 개수의 정량적 분석 및 별자리 모양과 연결패턴의 분석 등의 차이점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별자리를 설명한 문장의 비교를 통해 당시 조선과 중국 보천가의 차이점과 특징을 조사하였다.

조선과 중국은 별자리 개수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별자리 그림에서 확인해 보면 조선은 287개의 별자리 1,453개의 별을 그린 반면 중국은 290개의 별자리 1,462개의 별이 그려져 있다. 조선 보천가에 누락된 별자리는 부광(扶筐), 천기(天紀), 낭장(郎將)으로 이들 세 별자리의 별은 모두 아홉 개이다. 그러나 실제 세 개의 별자리 중 부광(扶筐)과 낭장(郎將) 두 별자리는 책의 편집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천기(天紀)만이 조선에는 없는 별자리임을 알 수 있다. 천기(天紀)는 조선의 전통 별자리에서 보이지 않는다. 별자리 이름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전체 별자리 중에서 31개의 별자리가 서로 다른 한자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하나의 별자리를 두 개로 나누어 표현하거나 발음은 같으나 다른 한자를 사용하는 등의 차이를 보인다.

별자리 그림에서 가장 큰 특징은 두 나라의 별자리 연결 패턴이 여러 곳에서 일관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별자리 연결선의 유무와 연결 형태 그리고 연결선의 모양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별의 개수에 따라 연결선의 열린 구조와 닫힌 구조가 두 나라의 22개 별자리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세 개씩 묶인 별이 연결 또는 분리된 별자리도 4개가 있다. 또한 별자리 연결선이 다른 형태의 별자리는

27개나 되었다. 수거성과 인접한 별과의 연결에 있어서도 조선의 7개 별자리는 수거성이 인접한 별과 연결된 반면 중국은 따로 분리해서 그려 놓았다. 같은 별자리이지만 별의 개수를 다르게 그린 별자리도 6개가 있다. 전체 별자리 중에서 66개의 별자리인 22.9%가 다른 연결방법으로 그려져 있다.

조선과 중국의 별자리 중에는 같은 별자리지만 별의 개수가 다른 6개의 별자리가 있다. 연도(輦道), 천장군(天將軍), 천균, 천원(天園), 기부(器府), 문창(文昌)이 그것인데, 천장군과 천균은 그림의 별 개수와 별자리 설명 내용이 일치하지만 연도, 천원, 기부, 문창은 별 개수가 설명 내용과 서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4개의 별자리는 중국과 조선의 별자리 설명에서는 별의 개수는 같으나 조선 보천가의 그림에는 별 개수를 다르게 그리고 있다. 즉, 보천가의 설명 내용에는 중국의 별 개수를 따랐지만 별자리에서 의도적인 변화를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들 6개 별자리 각각의 별의 수는 서로 다르지만 전체의 별 개수는 80개로 같다. 이로 인하여 별의 총 개수만 살펴보면 모든 별자리가 같은 개수의 별로 구성된 것처럼 보인다.

별자리를 설명한 본문에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과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몇몇 특징적인 차이가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별의 색깔과 별자리 설명이다. 조선 보천가에는 적(赤), 홍(紅), 황(黃), 백(白), 흑(黑), 오(烏)의 여섯 글자로 별의 색을 표현하고 있다. 실제 이들 색깔은 별의 밝기에 따른 스펙트럼 형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별 그림이 별을 밝기에 따라 크기를 달리해 표현한 것과 함께 별을 구분해서 표현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별의 색깔 중 적(赤)-홍(紅)과 흑(黑)-오(烏)는 같은 색이지만 다른 글자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연구하는 것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조선 보천가는 전체적인 구성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삼원 28수의 별자리 체계를 따르고 있다. 이 책에는 28수 별자리 설명에 각각의 별자리가 차지하는 영역과 별자리의 방위, 별자리가 포함된 황도 12궁, 12지와 12분국(分國)을 적고 있다. 이는 왕희명 보천가에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조선 초기의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에는 기록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28수 별자리 설명은 조선과 중국이 비슷하지만 별자리 전반에 걸쳐 많은 곳에서 다른 설명과 글자가 보인다. 28수의 설명과는 달리 삼원(三垣)에는 문장 전체가 다르거나 새로운 설명이 추가된 부분이 있다. 책의 마지막에는 은하수를 설명한 “천하기물(天河起沒)”이 있는데 이는 중국 왕희명 보천가에는 없는 내용이다.

조선과 중국의 보천가는 별자리 그림과 문장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비록 전체 구성이나 내용은 비슷하지만 별의 색깔 표현, 별자리 연결선의 특징, 문장 설명의 차이 등 여러 일관된 차이점을 보인다. 이는 중국 책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보다는 의도적인 침삭의 결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조선의 보천가를 편찬하며 중국과 다른 천문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조선 고유의 천문 체계나 지식이 전해져 왔음을 말해준다. 또한 조선 보천가의 본문에 보이는 설명의 차이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별자리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문화적 차이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조선과 중국의 전통 천문학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보천가 이후 만들어진 두 나라의 천문도나 천문서적에 나타난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연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서 다룰 것이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08년도 기초기술연구회 협동연구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김일권 2006, 인류의 문화유산: 고구려 고분벽화 (서울: 연합뉴스), p.36

- 나일성 1996, 동방학지, 93, 41
- 박경규 1995,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박창범 1998, 한국과학사학회지, 20, 113
- 박창범, 양홍진 2009, 한국과학사학회지, 31, 1
- 송두중 2006, 한국의 고천문학 및 천상열차분야지도 워크숍 논문집, 편집자: 이은석, 양홍진 (대전: 한국천문연구원), p.25
- 이용복 2007,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전통 천문도: 제1회 소남천문학사연구소 심포지엄 (서울: 소남천문학사연구소), p.31
- 이용복 2008, 黃帝內經에 나타난 天文現象과 별자리, 특별 세미나 (반룡 고천문연구회)
- 진준규 1978, 中國天文學史(上)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p.204
- 橋本敬造 1998, 東アジアの古代文化, 97, 13
- 石雲里 1998, 中國科技史料, 19, 69
- 任繼愈 1993, 中國科學技術典籍通彙, 任繼愈 主編 (河南: 河南教育出版社)
- 蔣廷錫 1993, 天象陰陽匯錄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 周曉陸 2004, 步天歌研究 (北京: 中國書店)

[부록]

A-1. 동방칠수 「보천가」 비교.

朝鮮 「步天歌」	王希明 「步天歌」
角二星十二度 對奎 天秤宮 辰地 鄭之分	東方角
兩紅南北正直着 中有平道上天田	兩星南北正直著 中有平道上天田
總是黑星兩相連 別有一烏名進賢	總是黑星兩相連 別有一烏名進賢
平道右畔獨淵然 最上三星周鼎形	平道右畔獨淵然 最上三星周鼎形
角下天門紅左平 雙雙橫於庫樓上	角下天門左右星 雙雙橫於庫樓上
庫樓十紅屈曲明 樓中五柱十五星	庫樓十星屈曲明 樓中柱有十五星
三三相屬如鼎形 中有四赤別名衡	三三相著如鼎形 其中四星別名衡
南門樓外兩星橫	南門樓外兩星橫
亢四星九度 對婁 天秤宮 辰地 鄭之分	亢
四紅却似彎弓狀 大角一紅直上明	四星恰似彎弓狀 大角一星直上明
折威七黑亢下橫 大角左右攝提星	折威七子亢下橫 大角左右攝提星
三三赤立如鼎形 折威下左頓頑星	三三赤立如鼎形 折威下左頓頑星
兩箇斜安黃色精 頑下二星號陽門	兩箇斜安黃色精 頑下二星號陽門
色若頓頑直下蹲	色若頓頑直下蹲
氐四星十五度 對胃 天蠍宮 卯地 宋之分	氐
四紅似斗側量米 天乳氐上黑一星	四星似斗側量米 天乳氐上黑一星
世人不識稱無名 一赤招搖梗河上	世人不識稱無名 一個招搖梗河上
梗河橫列三星狀 帝席三黑河之西	梗河橫列三星狀 帝席三黑河之西
亢池六黑近攝提 氐下衆星騎官赤	亢池六星近攝提 氐下衆星騎官出
騎官之星二十七 三三相連十欠一	騎官之衆二十七 三三相連十欠一
陣車三黑氐下是 車騎三烏官下位	陣車氐下騎官次 騎官下三車騎位
天輻兩黃立陣傍 將軍陣裏振威霜	天輻兩星立陣旁 將軍陣裏振威霜
房四星五度 對昴 天蠍宮 卯地 宋之分	房
四紅直下主明堂 鍵閉一黃斜向上	四星直下主明堂 鍵閉一黃斜向上
鈞鈴兩赤近其旁 罰有三黃植鍵上	鈞鈴兩個近其傍 罪有三星植鍵上
兩咸夾罰似房狀 房下一烏號爲日	兩咸夾罰似房狀 房下一星號爲日
從官兩黃日下出	從官兩個日下出
心三星五度 對畢 天蠍宮 卯地 宋之分	心
三星中央赤最深 下有積卒紅十二	三星中央色最深 下有積卒共十二
三三相聚心下是	三三相聚心下是
尾九星十八度 對觜 人馬宮 寅地 燕之分	尾
九赤如鉤蒼龍尾 下頭五赤號龜星	九星如鉤蒼龍尾 下頭五點號龜星
尾上天江四紅是 尾東一赤名傳說	尾上天江四橫是 尾東一個名傳說
傳說東紅一魚子 龜西一赤是神宮	傳說東畔一魚星 龜西一室是神宮
所以列在后妃中	所以列在后妃中
箕四星十一度 對參 人馬宮 寅地 燕之分	箕
四紅其狀似簸箕 箕下三紅名木杵	四星形狀如簸箕 箕下三星名木杵
箕前一黑是糠皮	箕前一黑是糠皮

- 조선 「보천가」 와 왕희명 「보천가」 의 문장에서 서로 다르게 기술된 부분을 진하게 표시하고 밑줄을 그어 나타냄
- '□' 표시는 인쇄 상태가 좋지 못해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를 표현한 것임

A-3. 西方七宿 「보천가」 비교.

朝鮮 「步天歌」	王希明 「步天歌」
奎十六星十六度 對角 白羊宮 戌地 魯之分	西方奎
腰細頭尖似破鞋 一十六紅逸鞋生	腰細頭尖似破鞋 一十六星逸鞋生
外屏七鳥奎下橫 屏下七鳥天濶明	外屏七鳥奎下橫 屏下七鳥天濶明
司空左畔土之精 奎上一黑軍南門	司空左畔土之精 奎上一宿軍南門
河中六赤閣道形 附路一赤道傍明	河中六個閣道形 附路一星道旁明
五紅吐花王良星 王良近上一策名	五個吐花王良星 良星近上一策名
婁三星十二度 對亢 白羊宮 戌地 魯之分	婁
三紅不均近一頭 左梗右梗烏來婁	三星不均近一頭 左更右更烏來婁
天倉六赤婁下頭 天庾三烏倉東脚	天倉六個婁下頭 天庾三星倉東脚
婁上十一將軍侯	婁上十二將軍侯
胃三星十四度 對氏 金牛宮 酉地 趙之分	胃
三紅鼎足河之次 天廩胃下斜四星	三星鼎足河之次 天廩胃下斜四星
天困十三如乙形 河中八赤名大陵	天困十二如乙形 河中八星名太陵
陵北九赤天船名 陵中積尸一黑星	陵北九個天船名 陵中積尸一個星
積水船中一黑精	積水船中一黑精
昂七星十一度 對房 金牛宮 酉地 趙之分	昂
七紅一聚實不少 阿西月東各一星	七星一聚實不少 河西月東各一星
月下五黃天陰明 陰下六烏蕪藥營	月下五黃天陰名 陰下六烏蕪藥營
營南十六天苑形 河裏六紅名卷舌	營南十六天苑形 河裏六星名卷舌
舌中一黑天讒星 礪石舌傍斜四丁	舌中黑點天讒星 礪石舌旁斜四丁
畢八星十六度 對心 金牛宮 酉地 趙之分	畢
恰似瓜叉八紅出 附耳畢股一星光	恰似瓜叉八星出 附耳畢股一星光
天街兩星畢背傍 天節耳下八烏幢	天街兩星畢背旁 天節耳下八烏幢
畢上橫黑六諸王 王下四皂天高星	畢上橫列六諸王 王下四皂天高星
節下黑團九州城 畢口斜對五車面	節下團圓九州城 畢口斜對五車口
車有三柱任縱橫 車中五點天潢明	車有三柱任縱橫 車中五個天潢精
潢上咸池三黑星 天關一赤車脚邊	潢畔咸池三黑星 天關一星車脚邊
參旗九赤參車間 旗下直立九旂連	參旗九個參車間 旗下直建九旂連
旂下十三烏天園 九旂天園參脚邊	旂下十三烏天園 九旂天園參脚邊
觜三星二度 對尾 陰陽宮 申地 晉魏之分	觜
三紅相近作參彙 觜上坐旗烏指天	三星相近作參彙 觜上坐旗直指天
尊卑之位九相連 司怪四黑坐旗邊	尊卑之位九相連 司怪曲立坐旗邊
曲立大近井鉞前	四鷄大近井鉞前
參十星九度 對箕 陰陽宮 申地 晉魏之分	參
總有十星觜相侵 兩肩雙足三爲心	摠有七星觜相侵 兩肩雙足三爲心
伐有三星腹裏深 玉井四紅右足陰	伐有三星足裏深 玉井四星右足陰
屏星兩赤井南襟 軍井四烏屏上吟	屏星兩扇井南襟 軍井四星屏上吟
左足四赤天厠臨 厠下一赤天屎沈	左足下四天厠臨 厠下一物天屎沈

A-4. 南方七宿 「보천가」 비교.

朝鮮 「步天歌」	王希明 「步天歌」
<u>井八星三十三度 對斗 巨蟹宮 未地 秦之分</u>	南方井
八紅橫列河中淨 一紅名鉞井邊安 兩河各三南北正 天樽三星井上頭 樽上橫列五諸侯 候上北河西積水 欲覓積薪東畔是 鉞下四烏名水府 水位東邊四紅是 四瀆橫黑南河裏 南河下頭是軍市 軍市圓紅十三星 中有一赤野鷄精 孫子丈人市下列 各立兩烏從東說 闕丘二黑南河東 丘下一狼光蒙茸 左畔九赤彎弧弓 一矢擬射頑狼胷 有箇老人南極中 春秋出入壽無窮	八星行列河中淨 一星名鉞井邊安 兩河各三南北正 天樽三星井上頭 樽上橫列五諸侯 候上北河西積水 欲覓積薪東畔是 鉞下四星名水府 水位東邊四星序 四瀆橫列南河裏 南河下頭是軍市 軍市團圓十三星 中有一個野雞精 孫子丈人市下列 各立兩星從東說 闕丘二個南河東 丘下一狼光蓬茸 左畔九個彎弧弓 一矢擬射頑狼胷 有箇老人南極中 春秋出來壽無窮
<u>鬼五星四度 對牛 巨蟹宮 未地 秦之分</u>	鬼
四紅冊方似木櫃 中央一白積尸氣 鬼上四烏是燿位 天狗七烏鬼下是 外廚天間柳星次 天社六黑弧東倚 社東一烏是天紀	四星冊方似木櫃 中央白者積尸氣 鬼上四星是燿位 天狗七星鬼下是 外廚六間柳星次 天社六個弧東倚 社東一烏是天紀
<u>柳八星十五度 對女 獅子宮 午地 周之分</u>	柳
八紅曲頭似垂柳 柳上三烏號爲酒 享宴大酺五星守	八星曲頭垂似柳 近上三星號爲酒 享宴大酺五星守
<u>星七星七度 對虛 獅子宮 午地 周之分</u>	星
七紅如鈎柳下生 星上十七軒轅形 軒轅東頭四內平 平下三黃名天相 相下稷星橫五靈	七星如鈎柳下生 星上十七軒轅形 軒轅東頭四內平 平下三個名天相 相下稷星橫五靈
<u>張六星十八度 對危 獅子宮 午地 周之分</u>	張
六紅似軫在星旁 張下只是有天廟 十四之星冊四方 長垣少微雖向上 星數歌在太微傍 太尊一星直上黃	六星似軫在星旁 張下只是有天廟 十四之星冊四方 長垣少微雖向上 星數斂在太微旁 太尊一星直上黃
<u>翼二十二星十八度 對室 雙女宮 巳地 楚之分</u>	翼
二十二紅大難識 上五下五橫着行 中間六點恰如張 更有六星在何許 三三相連張畔附 必若不能分處所 更請向前看野取 五箇黑星翼下頭 要知名字是東區	二十二星大難識 上五下五橫着行 中心六個恰似張 更有六星在何處 三三相連張畔附 必若不能分處所 更請向前看野取 五個黑星翼下頭 欲知名字是東區
<u>軫四星十七度 對壁 雙女宮 巳地 楚之分</u>	軫
四紅如張翼相近 中央一赤長沙子 左轄右轄附兩星 軍門兩黃近翼是 門下四黃土司空 門東七烏青丘子 青丘之下名器府 器府黑星三十二 已上便爲太微宮 黃道向上看取是	四星似張翼相近 中央一個長沙子 左轄右轄附兩星 軍門兩黃近翼是 門下四個土司空 門東七烏青丘子 青丘之下名器府 器府之星三十二 以上便爲太微宮 黃道向上看取是

A-5. 3垣「보천가」 비교.

朝鮮「步天歌」	王希明「步天歌」
太微垣	太微宮
<p>上元太微宮 昭昭列象布蒼穹 端門只是門之中 左右執法門西東 門左日皂乃謁者 以次即是烏三空 三黑九卿公背傍 五黑諸候卿後行 四赤門西主軒屏 五帝內坐於中正 宰臣太子并從官 烏列帝後陣東定 郎將虎賁居左右 常陳郎位居其後 常陣七星不相誤 郎位陳東赤十五 兩面宮垣十紅布 左右執法是其所 東垣上相次相陳 次將上將逆南去 西面垣牆依此數 但將上將逆南去 宮外明堂希政宮 三靈臺候雲雨 少微四赤西南隅 長垣雙雙徵西居 北門西外接三台 與垣相對無兵災</p>	<p>上元太微宮 昭：列象在蒼穹 端門只是門之中 左右執法門西東 門左皂衣一謁者 以次即是烏三空 三黑九卿公背旁 五黑諸候卿後行 四個門西主軒屏 五帝內坐于中正 宰臣太子并從官 烏列帝後從東定 郎將虎賁居左右 常陳郎位居其後 常陣七星不相誤 郎位陳東一十五 兩面宮垣十星布 左右執法是其數</p> <p>宮外明堂布政宮 三個靈臺候雲雨 少微四星西南隅 長垣雙：徵西居 北門西外接三台 與垣相對無兵災</p>
紫微垣	紫微宮
<p>中元北極紫微宮 北極五星在其中 大帝之坐第二珠 第三之星庶子居 第一却號為太子 四為後宮五天樞</p>	<p>中元北極紫微宮 北極五星在其中 大帝之坐第二珠 第三之星庶子居 第一號曰為太子 四為后宮五天樞</p>
<p>左右四星是四輔 天一太一當門路 左樞右樞夾南門 兩面營衛一十五 上宰少宰上輔星 少輔上衛少衛丞</p>	<p>左右四星是四輔 天一太一當門路 左樞右樞夾南門 兩面營衛一十五 上宰少尉兩相對 少宰上輔次少輔 上衛少衛次上丞 後門東邊大贊府 門西喚作一少丞 以次却向前門數</p>
<p>相對垣西上丞位 少衛方當上衛明 次第相連於少輔 上輔少尉接樞戶 陰德門裏兩黃是 尚書以次其位五 女史柱史各一戶 御女四黃五天柱 大理兩鳥陰德邊 句陳尾指北極顛 句陳六星六甲前 天皇獨坐句陳裏 五帝內坐後門是 華蓋并杠十六星 杠作柄象蓋傘形 蓋上連連九黑星 名曰傳舍如連丁 垣外左右各六星 右是內階左天廚 階前八星名八穀 廚下五赤天棓宿 天床六鳥左樞在 內廚兩黑右樞對 文昌斗上半月形 稀疎疎六箇星 文昌之上曰三師 太尊只向三師明 天牢六星太尊邊 太陽之守四勢前 一位相星太陽側 更有三公相西邊 杓上玄戈一紅圓 天倉三赤戈上懸 天理四鳥斗裏暗 輔星近看闕陽淡</p>	<p>相對垣西上丞位 少衛方當上衛明 次第相連於少輔 上輔少尉接樞戶 陰德門裏兩黃聚 尚書以次其位五 女史柱史各一戶 御女四星五天柱 大理兩星陰德邊 句陳尾指北極顛 句陳六星六甲前 天皇獨坐句陳裏 五帝內座後門是 華蓋并杠十六星 杠作柄象華蓋形 蓋上連連九個星 名曰傳舍如連丁 垣外左右各六珠 右是內階左天廚 階前八星名八穀 廚下五個天棓宿 天床六星左樞在 內廚兩星右樞對 文昌斗上半月形 希疎分明六個星 文昌之下曰三公 太尊只向三公明 天牢六星太尊邊 太陽之守四勢前 一個宰相太陽側 更有三公相西偏 即是元戈一星圓 天理四星斗裏暗</p> <p>輔星近看開陽淡</p>
<p>第一主帝名樞精 北斗之宿七星明 第四名權第五衡 第二第三璇璣星 闕陽搖光六七星</p>	<p>第一主帝名樞精 北斗之宿七星明 第四名權第五衡 第二第三璇璣星 開陽搖光六七名</p>

A-5. 계 속

朝鮮 「步天歌」	王希明 「步天歌」
天市垣 下元一宮名天市 左右垣墻二十二	天市垣 下元一宮名天市 兩廂垣墻二十二 當門六角黑市樓 門在兩星是車肆 兩個宗正四宗人
魏趙九河及中山 齊并吳越徐星是 却從東海至幽燕 漸歸南海宋門前 西門相對韓而楚 梁并巴蜀至秦隴 東周鄭晉連相繼 河間直至河中止 當門六角黑市樓 門左兩黃是車肆 四赤宗人兩宗正 宗星一雙亦依此 帛度兩黃屠肆前 候星環在帝坐邊 帝坐一星常光明 四赤微茫宦者星 以次兩星名列肆 斛斗帝前依其次 斗是五星斛是四 垣北九赤貫索星 索口橫者七公星 天紀恰似七公形 數著分明多兩星 紀北三紅名女床 此坐環依織女旁 三元之象無相侵 二十八宿隨其陰 七政絡繹詳推尋	宗星一□亦依次 帛度兩星屠肆前 候星環在帝座邊 帝座一星常光明 四個微茫宦者星 以次兩星名列肆 斗斛帝前依其次 斗是五星斛是四 垣北九個貫索星 索口橫者七公成 天紀恰似七公形 數著分明多兩星 紀北三星名女床 此坐環依織女旁 三元之象無相侵 二十八宿隨其陰 水火木土并與金 以次別有五行吟

- 태미원: 조선 『보천가』 7언의 4구절 문장이 추가됨, '□' 표시는 같은 글자 반복을 나타냄
- 자미원: 조선 『보천가』 7언의 5구절 문장이 추가되었고 왕희명 『보천가』의 7언 4구절이 누락됨
- 자미원: 조선 『보천가』에 없는 문장이 왕희명 『보천가』에서 주석 형태('□', '□'안의 문장)로 2군데 나옴
- 천시원: 조선 『보천가』 7언의 11구절 문장이 추가되었고 왕희명 『보천가』의 7언 3구절이 누락됨(마지막 문장은 왕희명 『보천가』의 내용을 축약하여 나타낸 것으로 누락된 문장으로 볼 수 없음)
- 천시원: 마지막 문단에서 조선의 '七政' 표현은 중국의 문헌에서 행성으로 세분화되어 기술됨

A-6. 天河起沒 「보천가」내용.

朝鮮 「步天歌」	王希明 「步天歌」
天河起沒 天河亦以名天漢 起自東方箕尾間 遂乃分爲南北道 南經傳說到魚淵 開鑰戴弁鳴河鼓 北經龜宿實箕邊 次絡斗魁胃左旗 右合南道天津湄 二道相合西南行 分來匏瓜絡人星 杵畔造父騰蛇精 王良附路闔道平 登此大陵泛天船 直烈卷舌又南征 五車駕向北河南 東井水位入吾驂 水位過了東南游 經次南河向關丘 天拘天記與天稷 七星南畔天河沒	

1. '천하기몰'은 중국 왕희명 『보천가』에는 나오지 않고 조선 『보천가』에만 나옴